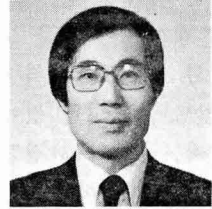


산업보건실태와 방향



소 장 조 원 황

1. 머릿말

산업보건의 목표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강저해 유해인자를 제거하고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력을 보존하여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며 작업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람이 무병장수 하는데 있어서는 주위 환경의 영향이 지대하듯이 근로자에게 있어도 작업환경과 보건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분진과 진폐증, 소음과 난청, 조도와 시력장애 등은 작업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초에 산업보건사업이 시작된 이래 괄목할만한 발전과 산업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의학 연구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학계,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정부등 관계자가 합심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2. 관내 산업보건의 실태와 문제점

1984년도 당소 관내의 사업장에서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의하면 대상사업장 748개소, 근로자 88,486명중 3,572명의 순환거 및 호흡기질환 등 환자가 발견되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대상사업장 66개소 근로자 4,917명중 진폐증, 소음성 난청등 161명의 직업성 질환자가 발견되었다.

작업장 내에서의 재해발생 건수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해에 대하여 1984년도 전국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재해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근로자의 안전지식 부족, 시설불량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직업성질환자나 재해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는 물론 유해부서 취업금지, 휴직 및 작업질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화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적정배치 및 범기업적 무재해, 무질병 운동을 적극 실시하였다면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은 것이다.

3. '86 산업보건 지도방향

노동부는 '86 노동행정 목표를 근로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두고 있다. 이에 맞추어 당소에서는 근로자 복지증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작업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작업장내의 유해물질관리 요령 및 작업환경 측정 의무이행 지도를 강화 재해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쾌적한 작

업환경에서 생산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및 일반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은 물론 근로자의 무지와 안전보건수칙 위배로 인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째, 근로자 건강진단의 내실을 기하고 부실검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이 연말등 일정시기에 집중 실시되는 폐단이 시정되도록 취업규칙에 실시월을 명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건강진단 실시현장 불시점검 등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질병자의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장 계도에도 주력할 것이다.

네째, 선임된 안전보건 관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

할 것이다. 특히, 축탁보건 관리자의 경우 보건관리자 1인당 사업장 10개이내, 근로자수 1,00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업무추진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직무내용 및 관계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선임된 안전보건 관계자중 해당 직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재선임 또는 향후 동 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지도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내 복지사업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유지 증진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숙사, 체육시설, 휴게시설등 다각적인 복지시설을 설치토록 지도 권장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확장하여 나갈 것이며, 그리하여 금년에는 명실공히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 사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